

제277차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월례연구발표회

2026. 03. 26. (목) 16:00 교학대학 302강의실

발표_일원상 진리 해석 논쟁의 전개와 새로운 해석의

모색 : 대·소·유무와 체용 개념을 중심으로

염승준(관진, 원광대학교), 조성훈(덕상, 원광대학교)

논평_정경훈(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Institute of Won-buddhist Thought

일원상 진리 해석 논쟁의 전개와 새로운 해석의 모색: 대·소·유무와 체용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염승준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조성훈

- I. 서론
- II. 일원상 진리 해석 논쟁의 전개
 - 1. 일원상 진리의 교리 체계 성립
 - 2. 일원상 진리의 해석 논쟁 대두
- III. 일원상 진리 해석의 쟁점
 - 1. 논쟁의 핵심 쟁점과 문제의식
 - 2. 일원상 진리의 '대소 유무' 개념과 삼학 '사리연구'의 대·소·유무 개념의 구분과 일원상 진리 구조의 대구 해석의 문제
 - 3. 일원상 진리의 현상론과 『대승기신론』의 현상론
 - 4. 소태산의 '체용'의 논리와 일원의 진리의 세 가지 측면
- IV. 결론

I. 서론

원불교학 연구자로서 '일원상 진리' 해석 논쟁을 고찰하는 일은 단순한 해석상의 문제를 넘어, 원불교 교리의 보편화 가능성과 해석 방법론의 정립에 직결되는 중요한 학문적 과제이다. 이는 소태산이 『조선불교혁신론』(1953)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불교 사상을 인류 보편의 사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으며, 교법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라는 원불교의 기본 방향 속에서 교리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일원상의 진리」는 원불교 교리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구절로서, 그 해석은 단순한 문장 이해를 넘어 일원상 진리의 구조와 원불교 진리관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전개된 해석 논쟁은 특정 구절의 결락 여부나 문장 구조의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대·소·유무'와 '체·용'과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진리 구조 전반을 해석하는 문제로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논쟁은 한편으로는 「일원상의 진리」가 포함된 「일원상」장의 형성과 정비 과정, 그리고 텍스트의 전승과 정본화 과정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구절에 대한 해석은 개별 문장에 대한 분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치한 교리 체계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해석이 전체 구조를 직접적으로 포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범주를 설정하고 그 내부에서 의미를 분석하는 방식 역시 정당한 해석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해석은 일정한 범위 설정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범위 안에서 해석적 타당성과 정밀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일원상」장의 형성과정을 교리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 이후 전개된 「일원상의 진리」 해석 논쟁의 흐름을 정리한다. 나아가 논쟁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 개념인 ‘대·소·유무’와 ‘체·용’을 중심으로 해석상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원상 진리 해석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일원상 진리 해석 논쟁의 전개

1. 일원상 진리의 교리 체계 성립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정전』 ‘일원상의 진리’절에 대한 해석학적 논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상위 체계에 해당하는 「일원상」장의 성립 과정과 해당 경전의 위상을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일원상」장은 1943년에 간행된 『불교정전』을 모본으로 하여 1962년 『정전』에서 그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최근 2024년 임시수위단회에서 1962년 간행된 『정전』과 『대종경』의 합본인 『원불교교전』 세로쓰기 초판본을 정본으로 확정함¹⁾으로써 교리 해석의 기준 텍스트로서의 위상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러한 점에서 일원상 진리를 비롯한 관련 법문의 해석이 단순한 문장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원불교교전』의 형성과 정본화 과정 속에서 형성된 교리 체계 전체와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원상 진리 해석 논쟁은 특정 구절의 의미를 둘러싼 차이를 넘어, 교리 체계의 성립·전승·해석 기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원상」장의 형성과정을 교리형성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준비기-체계화기-계승·정본화기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적인 체계의 성립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일원상 진리 해석을 함에 있어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원상’장 형성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1) 준비기(1916-1935)

1916년 소태산은 대각을 이루었지만, 자신이 깨달은 궁극적 진리를 일정한 개념 언어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 일원상은 아직 교리적 개념으로 정식화되기 이전의 단계에 해당한다. 실제로 소태산은 대각 직후 ‘한 두렷한 기틀’과 같은 표현을 통해 그 깨달음의 내용을 암시하였고 이후 ‘일원(一圓)’, ‘대원(大圓)’, ‘원기(圓機)’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 동일한 진리 내용을 점진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현재의 「일원상」장이 보여주는 교리 구조 역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1916년 대각 이후부터 1934년 대각전 일원상 봉안과 『조선불교혁신』의 출판이전까지의 시기는 「일원상」장이 직접적으로 구성되는 단계라기보다 이후 교리 체계로 발전하게 될 사상적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계화기(1935-1943)

1935년 대각전 일원상 봉안과 『조선불교혁신』의 출판을 기점으로, 일원상은 상징적 표현의 단계를 넘어 교단의 공식 교리 개념으로 천명되었다. 이 시기를 통해 일원상은 단순한 깨달음의 표상을 넘어

1) 원불교 교단적으로 이것을 원경임을 선언했다. (원불교신문)

신앙의 대상이자 교리적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일원상」장 형성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마련되었다.

이후 일원상에 대한 교리적 내용은 점차 구체화되었다. 초기에는 1938년 「심불일원상내역급서원문」의 성립이 성립되고 경전 편찬을 추진되었는데, 비록 실제 출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이 시도는 「일원상 서원문」 단일체계의 형성을 보여준다.²⁾ 당시 교단(불법연구회)은 기존 교리서인 『육대요령』을 보완하고, 그동안의 법설과 불교 경전을 종합하여 「일원상 서원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전, 즉 『정전』의 편찬을 시도하였다. 만일 이러한 편찬이 성사되었다면, 당시의 『정전』은 「일원상 서원문」만으로 구성된 단일체계의 경전으로 출판되었을 것이다.

이어 1941년 「계승」과 「일원상 법어」가 추가되면서 일원상 교리는 서원문·법어·계승의 삼체계로 확정·정착되었다. 이러한 단계적 전개를 거쳐 1943년 『불교정전』이 편찬되면서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수행」이 새롭게 정립되고, 기존의 삼체계와 통합됨으로써 「일원상」장은 하나의 완결된 교리 체계로 성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1935년부터 1943년까지의 시기는 일원상 교리가 개념적으로 확정되고, 개별 법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교리 체계로 조직되는 단계, 곧 「일원상」장의 체계화기로 규정할 수 있다.

(3) 계승·정분화기(1943-1962)

1943년 『불교정전』의 편찬을 통해 「일원상」장은 교리적으로 완결된 구조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1962년 『정전』으로 재편되는 과정은 이러한 교리 체계가 계승·정비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교리 내용이 추가되기보다는 기존 「일원상」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과 일부 표현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전체 구조가 안정화되었다. 실제로 『정전』의 「일원상」장은 『불교정전』의 내용을 대부분 계승하면서 「일원상의 유래」를 제외하고 대신 「계승」을 장 안에 포함시키고, 「일원상 법어」의 “차(此) 원상”을 “이 원상”으로 수정하는 등의 최소한의 구조적·내용적 변화를 거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정비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원상」장은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수행」, 「일원상 서원문」, 「일원상 법어」, 「계승」의 여섯 절로 구성된 교리 체계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원불교 교단에서 일원상 신앙과 수행의 기준이 되는 핵심 텍스트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리 체계의 성립은 단순한 역사적 정리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전개되는 해석학적 논쟁의 범주와 전제 조건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해석은 특정 개념이 속한 체계와 범위를 전제할 때 비로소 타당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계적 맥락을 간과할 경우 부분적인 문장 해석에 머물러 전체 교리 구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1962년에 확립된 『정전』의 텍스트는 오랜 시간 해석의 기준으로 기능해 왔으나, 이를 교단적으로 정본으로 공식 인정한 것은 2024년 임시수위단회를 통해 이루어졌다.³⁾ 곧 「일원상」장의 교리 체계는 1962년에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 텍스트의 권위와 해석 기준으로서의 지위는 2024년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다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당시 경전 편찬을 추진하면서 기존 교리서인 『육대요령』을 보완하고, 그동안의 법설과 불교 경전을 종합하여 「일원상 서원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전, 즉 『정전』의 편찬을 시도하였다. 만일 당시의 편찬이 성사되었다면, 당시의 『정전』은 「일원상 서원문」만으로 구성된 단일체계의 경전으로 출판되었을 것이다. 朴將植, 「佛敎正典 編修當時 歷史的 顛末」 『원불교사상』 제6집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1993, 470-471쪽.

3) 이러한 결정에는 2021년에 출판한 『원불교전서』 개정증보판에 심각한 오기와 편집오류가 발생하여 전량 회수 및 폐기하는 사태의 영향도 있다.

출처 : 한울안신문(<http://www.hanulan.or.kr>) 회수 사태와도 맞물려 있다.

따라서 1943년부터 1962년까지의 시기는 「일원상」장이 『불교정전』에서 『정전』으로 계승되며 교리적으로 정비·안정화되는 단계이자, 이후 정보 인정의 기준이 되는 텍스트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이를 「일원상」장의 계승·정문화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비된 「일원상」장에 대한 구성 체계는 시기별 전개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 <표 1>은 기존 연구의 도표를 바탕으로 하되⁴⁾, 1943년 『근행법』을 포함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표 1> 「일원상」장의 형성과 전개

	단일체계	삼체계	육체계		
	1938년	1941년	1943년		1962년
			『불교정전』	『근행법』	
「일원상의 진리」			●		●
「일원상의 신앙」			●		●
「일원상의 수행」			●		●
「일원상 서원문」	●	●	●	◎	●
「일원상 법어」		◎	●	◎	●
「계승」		◎	◎	◎	●
「일원상의 유래」			●		×

● 포함, × 삭제, ◎ 해당 시기에 등장하였으나 「일원상」장에 편입되지 않음.

※ 1939년 6월 『회보』 제55호에 수록된 ‘일원상의 진리’라는 제목의 공·원·정 법문(『대종경』 교의품 7장)은 「일원상」장에 편입된 적이 없으므로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근행법』(1943)에는 「일원상」장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표 1>은 「일원상」장이 단일한 형태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1938년 서원문 단일체계에서 출발하여 1941년 서원문·법어·계승의 삼체계를 거쳐, 1943년 『불교정전』에서 1962년 『정전』에 준하는 교리 체계로 정립되고, 이후 『정전』(1962)에서 현재의 구조로 정비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각 구성 요소가 시기별로 등장·편입·삭제되는 양상을 통해 「일원상」장이 점진적으로 형성·정비된 교리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 형성과정을 고려할 때, ‘일원상 진리’에 대한 해석은 개별 구절의 의미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치한 「일원상」장 전체의 구성과 교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해석은 항상 일정한 범주와 구조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전제를 간과할 경우 부분적인 문장 해석에 머물러 전체 교리 체계를 놓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해석이 반드시 전체 체계를 직접적으로 포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범주나 범위를 한정해 해석 역시 정당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적 연구에서 특정 개념을 다룰 때 그 범위와 범주를 설정하는 조작적 정의가 선행되듯, 해석 역시 일정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의미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해석 논쟁 역시 「일원상」장이라는 전체 교리 체계를 전제하되, 그 안

4) 조성훈, 「원불교 「일원상 법어」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4쪽.

에서 「일원상의 진리」라는 특정 범주를 중심으로 『정전』 삼학 중 사리연구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며 이루어지는 해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전체 구조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면서도, 일정한 범위 설정을 통해 그 내부에서의 해석 가능성과 의미 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2. 일원상 진리의 해석 논쟁 대두

일원상 진리에 대한 해석 논쟁은 2005년 말 한정석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 그는 『원불교신문』에 「정전 ‘일원상’ 해석의 두 가지 문제」⁵⁾를 기고하면서, 「일원상의 진리」에 ‘생멸 거래에 변함이 있다’는 구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일원상 서원문」에서 신앙 방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해당 내용이 별도의 구절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소유무에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곧바로 반론을 불러일으켰다. 이종진은 「일원상 진리장 해석의 다른 견해」⁶⁾를 통해 체·상·용 및 체·용의 구분을 바탕으로, 생멸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은 진리의 용(用)에 해당하므로 체(體)의 차원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해당 구절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가 오히려 정합적이라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정석은 다시 「‘일원상의 진리’절 해석의 기본체계」⁷⁾를 통해 재반박을 시도하였다. 그는 체상용이나 체용의 구분이 불교 사상적 전통에서 유래한 해석 틀임을 인정하면서도, 「일원상 서원문」에서 나타나는 ‘유상으로 보면’과 ‘무상으로 보면’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체와 용을 분리된 실체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즉 체와 용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원상 진리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 비판과 재반박은 『원불교신문』을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약 두달에 걸쳐 다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논쟁으로 확장되었다. 이후 다섯 편의 추가 기고⁸⁾와 학술토론 기사⁹⁾를 포함하여 총 아홉 편의 글을 통해 논쟁의 흐름이 형성되었으며, 여기에 『평화의 염원』에 수록된 관련 논의¹⁰⁾까지 포함하면 일원상 진리 해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총 10편의 글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일원상 진리 해석 논쟁의 전개 목록

-
- 5) 한정석, 「정전 ‘일원상’ 해석의 두 가지 문제」, 『원불교신문』(2025년 12월 30일).
 - 6) 이종진, 「일원상 진리장 해석의 다른 해석」, 『원불교신문』(2026년 1월 13일).
 - 7) 한정석, 「정전 ‘일원상’ 해석의 두 가지 문제」, 『원불교신문』(2026년 1월 20일).
 - 8) 다섯 편의 추가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이종진, 「성리의 체(體)는 공적인 무(無)가 아니다」, 『원불교신문』(2006년 1월 27일); 박성기, 「일원상 진리의 큰 그림」, 『원불교신문』(2006년 2월 10일); 이종진, 「성리의 체(體)와 분별을 보는 입장」, 『원불교신문』(2006년 2월 17일); 이경식, 「‘일원상의 진리’ 해석에 대한 어문학적 접근」, 『원불교신문』(2006년 2월 24일); 황도국, 「일원상 진리의 구조에 관한 견해」, 『원불교신문』(2006년 3월 3일).
 - 9) 문향허 정리, 「[2/28 학술토론] 일원상 진리의 재인식」, 『원불교신문』(2006년 3월 10일).
 - 10) 박정식,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에 대한 해석」, 『평화의 염원』, 원불교출판사, 2005, 247쪽.

	제안자	제목	출처/발행날짜
1	한정석	정전 '일원상' 해석의 두 가지 문제	『원불교신문』/2005.12.30
2	이종진	일원상 진리장 해석의 다른 견해	『원불교신문』/2006.01.13
3	한정석	'일원상 진리'절 해석의 기본체계	『원불교신문』/2006.01.20
4	이종진	성리의 체(體)는 공적인 무(無)가 아니다	『원불교신문』/2006.01.27
5	박성기	일원상 진리의 큰 그림	『원불교신문』/2006.02.10
6	이종진	성리의 체(體)와 분별을 보는 입장	『원불교신문』/2006.02.17
7	이경식	'일원상의 진리' 해석에 대한 어문학적 접근	『원불교신문』/2006.02.24
8	황도국	일원상 진리의 구조에 관한 견해	『원불교신문』/2006.03.03
9	다수(多數)	[2/28 학술토론] 일원상진리의 재인식	『원불교신문』/2006.03.10
10	박장식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에 대한 해석	『평화의 염원』/2005.09.15

이러한 논쟁의 전개를 종합해 보면, 그 출발점은 「일원상의 진리」의 문장 구조와 관련된 문제, 특히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의 대응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네 가지 '없는 자리'에 대응하는 '있는 자리'가 세 가지로 제시되면서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 가운데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음'과 대구를 이루는 구절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문장 해석의 차이를 넘어, 진리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해석 문제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점은 「일원상의 진리」를 둘러싼 논의가 개별 구절의 해석을 넘어 원불교 진리관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¹¹⁾

이와 관련하여 논쟁에서 제시된 주요 입장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문장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해당 내용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일원상 진리의 구조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생멸 거래에 변함이 있음'이라는 내용은 이미 '대소유무에 분별이 나타남'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셋째,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는 동일한 대구 구조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장 구조를 가지므로, 이를 단순히 대응 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넷째, 체용 또는 체상용과 같은 개념은 해석을 위한 도구일 뿐이며, 이를 진리 자체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이다.

한편 이러한 해석 논쟁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텍스트 형성과 전승 과정에 대한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수행」과 같은 절은 『불교정전』 편찬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이며, 그 형성 과정이 다른 법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특히 『정산종사전』에서는 이들 절이 정산종사의 주도로 정리·편입되었다는 점이 언급되면서¹²⁾, 해당 텍스트의 형성과정 자체가 해석 논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논쟁은 단순히 특정 구절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원상 진리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구조를 해석하는 데 어떠한 개념적 틀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특히 논쟁 과정에서 '대·소·유무'와 '체·용'(또는 체·상·용)과 같은 개념이 해석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후 논의가 일정한 개념적 구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11) 황명희·허석, 「원불교 진리관 연구의 종합적 검토와 과제 - '일원상의 진리'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93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1.

12) “정산 종사는 대중사의 평소 말씀과 정신을 받들어 일원상 진리·신앙·수행을 초하신 뒤 대중사께 사뢰었다. '일원상 장 앞 부분에 이것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문에나 법어에 그 의미가 다 들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넣어 두는 것이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하여 제2편 제1장 일원상 안에 제1절부터 3절까지 일원상 진리·신앙·수행이 들어가게 되었다.”, 박정훈, 『정산종사전』, 원불교출판사, 2002, 291쪽.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논쟁에서 드러난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일원상 진리 해석의 쟁점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I. 일원상 진리 해석 논쟁의 쟁점

1. 일원상 진리 해석 논쟁의 쟁점

한정석(釋山 韓正釋 宗師, 1932~2016)은 ‘일원상 진리’에서 ‘대소 유무(大小有無)의 분별이 없는 자리’의 ‘대소 유무’ 개념을 ‘사리연구’의 이(理), 즉 ‘천조(天造)’의 ‘대소 유무(大小有無)’ 개념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일원상 진리의 해석에 있어서 “생멸거래에 변함이 있는 자리는 대소유무에 분별이 나타나는 구절의 유무의 분별에 포함된다.”¹³⁾는 견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원상 진리의 구조를 대구(對句)의 수사(修辭)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일원상 진리에서 ‘생멸거래에 변함이 있는 자리’의 대구가 결락(缺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일원상 진리에서의 ‘대소 유무’ 개념과 사리연구 ‘대소 유무’ 개념을 동일시하는 데 있는 문제이고 둘째는 일원상 진리의 구조를 수사적(修辭的) 대구(對句)로 보는 것의 문제이다. 일원상 진리에서 ‘자리’라는 구절은 소위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의 대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일원상 진리의 구조에서 대소 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에 대한 대구의 구절은 없다. 그 자리에 바탕하여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 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나서’, ‘~나며’, 언어와 명상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생성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일체의 경계를 초월한 무한과 절대의 일원의 자리에서 신비롭게도 상대와 경계가 형성이 되어 분별이 나타나서, 선과 악의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전하게 현상한다는 것이다.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제불 제성의 심인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 유무(大小有無)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言語名相)이 돈공(頓空)한 자리로서 공적 영지(空寂靈知)의 광명을 따라 대소 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전하여十方 삼계(十方三界)가 장중(掌中)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 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無始曠劫)에 은현 자재(隱顯自在)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¹⁴⁾

한정석에 따르면 일원상 진리에서 결락된 생멸 거래에 변함이 나타나는 것이 ‘대소 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에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대중사님께서 감수하실 때에 대소 유무에 포함된 것으로 들었다”는 박장식(常山 朴將植 宗師, 1911~2011)의 언급을 들 수 있지만 결락된 ‘생멸 거래에 변함이 나타남’이 ‘대소 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일원상 진리의 구조를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의 수사적 대구로 간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한정석의 일원상 진리 해석에 대해 이종진(誓山 李宗眞 宗師, 1939~2013)은 『대승기신론』의 ‘진

13) 「정전」 ‘일원상’ 해석의 두 가지 문제. 원불교신문 12월 30일

14) 「정전」 제2 교의편(教義編) 제1장 일원상(一圓相)제1절 일원상의 진리(一圓相-眞理)

여 자체'의 체(體)와 그 공덕(功德)인 상(相)과 작용의 용(用) 각각의 삼대(三大)에 근거하여 '생멸 거래에 변함이 있게 되는 것'을 '유무(有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그 이유는 일원상 진리를 체와 용으로 구분할 때 '대(大)'와 '소(小)'는 일원상 진리의 체(體)에 그리고 '유무'는 '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진의 견해는 일원상 진리의 체에 부합하는 '대'와 '소'는 일체의 시간과 변화와 그리고 운동 너머의 절대와 무한의 경지인데 반해 '유무'는 사리연구의 '유무'에 대한 정의—"천지의 춘·하·추·동 사시 순환과, 풍·운·우·로·상·설(風雲雨露霜雪)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에 근거해서 시공간의 현상세계에서의 변화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정석과 이중진의 일원상 진리 해석 논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원상 진리의 '대소 유무(大小有無)'와 삼학(三學)의 '사리연구'의 '천조(天造)'의 '대소 유무(大小有無)'의 '유무' 개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둘째, 사리연구의 "천지의 춘·하·추·동 사시 순환과, 풍·운·우·로·상·설(風雲雨露霜雪)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과연 시방삼계, 즉 시공간의 현상세계의 생성, 변화, 운동과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대', '소' 그리고 '유무' 세 가지 개념이 모두 '리(理)', 즉 '천조(天造)의 대소 유무(大小有無)'로 하나의 리이지만 대, 소, 유무의 세 가지의 측면의 고유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그렇다고 하나의 이치에서 대와 소를 체로 유무를 용으로 이원화 해서 구분될 수는 없다.

사(事)라 함은 인간의 시·비·이·해(是非利害)를 이름이요, 이(理)라 함은 곧 천조(天造)의 대소 유무(大小有無)를 이름이니, 대(大)라 함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小)라 함은 만상이 형형 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 함은 천지의 춘·하·추·동 사시 순환과, 풍·운·우·로·상·설(風雲雨露霜雪)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며, 연구라 함은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름이니라.¹⁵⁾

체인 대와 소에 유무인 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관점, 다시 말해서 대소 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에 '생멸 거래에 변함이 있게 되며'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견해는 본체와 본체의 작용을 이원화 시킴으로 인해서 『대승기신론』의 핵심인 중생심이 곧 부처라는 관점에도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일원이 '우주만유의 본원'으로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관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일원상 진리의 '대소 유무(大小有無)' 개념과 삼학(三學) '사리연구(事理研究)'의 대·소·유무 개념의 구분과 일원상 진리 구조의 대구(對句) 해석의 문제

일원상 진리에서 '대소 유무(大小有無)에 분별이 없는 자리'의 구절에서 '대소 유무' 개념은 사리연구의 '대소 유무' 개념과 그 의미를 달리 하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한다. 이해와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전」 일원상 진리에서 '대소 유무(大小有無)에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대소 유무'는 표기에 있어서 대·소·유·무로 삼학 가운데 하나인 사리연구의 '대소 유무'는 대·소·유무로 표기가 되어야 한다.

일원상 진리에서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 일원의 자리에는 안과 밖의 경계가 없어 무한하고 절대적이다. 그래서 우주 만유는 일원에 포섭되어 있다. 어떤 존재도 일원의 바탕에 의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곧 일원이 우주만유의 본원의 뜻이다. 안과 밖이 없

15) 「정전」 제2 교의편(教義編) 제4장 삼학(三學) 제2절 사리연구(事理研究)

는 무한과 절대의 경지를 소태산 대종사는 ‘자리’ ‘오가(吾家)’¹⁶⁾, ‘본가(本家)’¹⁷⁾ 등의 비유적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자리는 일체의 ‘세간법(世間法)’과 ‘출세간법(出世間法)’. 일체제법(一切諸法). 우주 만물을 포괄하는 ‘무한’과 ‘절대’이기에 ‘이언진여(離言眞如)의 경지인 ‘진공(眞空)’이지만 ‘의언(依言)’, 즉 언설(言說)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일체의 분별과 경계 너머의 이 자리를 언설하는 것은 ‘말을 하되 말을 넘어서는 것’으로 말과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바탕이 각각의 개별적 존재 너머에 있지만 그렇다고 그 개별적 존재 밖에 있지 않기에 말과 개념 너머의 이언(離言)과 말과 개념에 의한 의언(依言)은 상호모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원효는 ‘진여(眞如)’에 ‘수순(隨順)하는 방식’으로 념(念)과 언설(言說)이 있는 속에서 능소(能所)와 분별을 넘어서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원효는 수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말하고 비록 생각한다고 해도’라고 말하는 것은 법이 없지 않다는 것을 밝혀 공견(空見)에 대한 약취(약취)를 떠나기 때문이다. ‘능히 말하는 자도 없고 말해 질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은 법이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 유견(有見)에 대한 집착(執着)을 떠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능히 알아 중도관을 따르기에 ‘수순’이라고 이름한다.¹⁸⁾

말과 개념 너머의 경지에 대해 침묵하게 되면 일체의 분별과 경계 너머의 그 무한과 절대의 경지는 무(無), 즉 없는 것이 되어 현상세계는 오직 분별과 경계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할 수 밖에 없으며 절대와 무한의 경지가 그러한 차별을 모두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용광로의 역할도 할 수 없다.

일원상 진리의 ‘대소 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대·소·유·무 개념과 삼학(三學) 사리연구의 대·소·유·무 개념을 명료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은 일원상 진리의 신앙과 수행에 역순(逆順) 할 수 있다. 언어와 문자에 지성이 사로잡히지 않는 데에 있어서 언설이 갖는 비중에 대해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사로잡힌 우리의 정신을 파리통에 빠진 파리에 비유하며 철학에서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파리에게 파리통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가르쳐 주는 것”¹⁹⁾이라고 주장했다.

철학은 언어가 우리의 지성을 사로잡는 것에 맞서는 투쟁.²⁰⁾

일원상 진리에서 일체의 경계와 분별을 초월한 무한과 일체의 상대를 끊은 절대의 경지인 ‘자리’는 ‘대소 유무(大小有無)에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 명상(言語名相)이 돈공(頓空)한 자리’로 언설되어 있다. ‘대소 유무(大小有無)에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대와 소 그리고 유와 무는 현상세계의 대대적(待對的)이고 상대적(相對的)인 일체의 것을 추상화해서 범주화한 것이다. 대와 소 유와 무 이외에 생과 멸, 거와 래, 선과 악의 개념은 모두 대대적이고 상대적인 현상세계의 구체적인 것을 추상화한 범주다. 이 개념은 한편으로는 모두 일원의 ‘자리’가 갖는 초월의 경지를 언설한 것이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미세한 차이를 갖는다.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는 ‘절대’와 ‘무한’을,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는 ‘불생불멸(不生不滅)’, ‘불변(不變)’, ‘부동(不動)’을, 선악업보에 차별이 없는 자리는 업으로부터의 자유(自由)와 초월(超越)을,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는 언어도단의 입정(入定)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다.

16) 「정전」 제2 교의편(教義編) 제1장 일원상(一圓相) 제5절 일원상 법어(一圓相法語)

17) 「대종경」 불지품 20장.

18) 한자경, 『대승기신론강해』, 서울: 불광출판사, 2013, 101쪽.

19) 김용규, 『신: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문명 이야기』, 774쪽.

20)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309. 김용규, 『신: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문명 이야기』, 774쪽 재인용.

그런데 이러한 절대와 무한의 경지인 자리는 우주만유의 본원. 즉 텅 빈 바탕으로서의 공(空)이지만 우주만물의 존재를 형성할 수 있기에 ‘불공(不空)’의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일원상 진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신비롭게(妙) 우주만유를 존재(有)하게 하는 ‘묘유(妙有)’로 언설이 되어 있다. 일원의 자리는 안과 밖이 없는 하나의 자리로서 ‘진공(眞空)’이지만 그 진공에 바탕하여 ‘묘유(妙有)’의 작용을 갖는다.

이 ‘묘유’의 작용이 일원상 진리의 “대소 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전하여”에 구절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일원상 진리의 구조에서 ‘분별이 없는 자리’, ‘차별이 없는 자리’, ‘변함이 없는 자리’, ‘돈공한 자리’에 대한 수사적 대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명으로 인한 분별로 인해 경계가 생기고, 그 경계에 상응한 집착으로 인해 선과 악의 업의 발생하여 언어 명상이 완전한 시공간의 시방삼계(十方三界)인 우주만물이 생성되고 현현(顯現)되는 것이다. 이 진공(眞空)과 묘유(妙有)의 조화가 무시광겁(無始曠劫)으로 은현 자재하는 것이 일원상의 진리인 것이고 이것이 일원상 진리의 현상론과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원상 진리의 진공과 묘유는 하나의 진리의 두 가지 측면으로 언설된다. 일원상 진리에서 ‘우주만유의 본원’, ‘제불조사의 심인’, ‘일체중생의 본성’인 일원은 무한과 절대로 텅 비어 있어 일체제법의 바탕으로서 ‘일체를 포섭하고 일체 경계를 생성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묘유(妙有)를 산출하는 진공(眞功)이기에 불공(不空)’이다.

하나의 진리인 일원상 진리의 두 측면인 진공과 묘유의 구조는 『대승기신론』의 ‘현상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중생의 진여(眞如)와 일심(一心)을 ‘공(空)’과 ‘불공(不空)’의 ‘두 가지 의미’로 분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진여는 두 측면을 갖는다. 첫째, ‘여실공(如實空): 망(妄) 없이 비어있어 실(實)을 현시함’. 둘째, ‘여실불공(如實不空): 자체가 무루의 공덕을 구축함’²¹⁾

그 다음 진여를 언설에 의거하여 분별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무엇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여실한 공이니, 궁극적으로 진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실한 불공이니, 빈틈없는 성품의 공덕을 구축한 (眞如) 자체가 있기 때문이다.²²⁾

사리연구의 대·소·유무 개념은 일원상 진리의 ‘대소 유무’와 달리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다. ‘대(大)’는 ‘우주 만유의 본체’. ‘소(小)’는 ‘만상이 형형 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 ‘유무(有無)’는 ‘천지의 춘·하·추·동 사시 순환과, 풍·운·우·로·상·설(風雲雨露霜雪)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리연구의 대·소·유무 개념은 일원상 진리의 ‘대소 유무(大小有無)’에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의 ‘대소 유무’ 개념과 의미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개념을 비교할 수 없다. 일원상 진리에서 생멸 거래에 변함이 있게 되는 구절의 결락에 대해 한정석과 이종진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일원상 진리의 ‘대소 유무’ 개념을 사리연구의 대·소·유무 개념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일원상 진리의 현상론과 『대승기신론』의 현상론

일원상 진리에서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업

21) 한자경, 『대승기신론강해』, 서울: 불광출판사, 2013, 102쪽.

22) “復次眞如者依言說分別有二種の。云何爲二? 一者如實空, 以能究竟顯實故, 二者如實不空, 以有自體具足無漏性功德故。” 한자경 지음, 『대승기신론강해』, 서울: 불광출판사, 2013, 101. 102쪽. 참조.

보에 차별이 없는 자리’, ‘언어명상이 든공한 자리’와 “대소 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전하여”의 구절은 대구가 되지 않는다. 앞서 밝히 것과 마찬가지로 진공과 묘유의 조화에 의한 우주 만유의 생성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텅 비어 진공한 것은 어떤 분별도 경계도 없는 ‘진공(眞空)’이지만 그 진공을 본체의 작용인 ‘묘유(妙有)’를 통해 분별이 나타나서, 업이 발생하며 언어명상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일원상 진리는 하나의 진리이지만 진공과 묘유의 두 측면을 갖는다.

이러한 우주만유의 본원으로서 일원상 진리가 진공과 묘유를 통해 우주만유를 형성하는 현상론은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一心二門)’의 현상론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일심(一心)은 무한과 절대의 경지로 일체의 분별과 경계를 초월한 진공(眞空)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 대한 중생의 무명(無明)으로 인해 인간의 의식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세 가지 미세한 모습(三種相)’인 ‘무명업상(無明業相)’, ‘능견상(能見相)’, ‘경계상(境界相)’이 있다.

불각(不覺)에 의하기 때문에 세 가지 상이 생겨서 저 불각과 더불어 상응하여 여의지 않으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무명업상(無明業相)이니, 불각에 의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깨달으면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이면 고통이 있게 되니, 결과가 원인을 여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능견상(能見相)이니, 움직임에 의하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것이니, 움직이지 않는다면 볼 것이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경계상(境界相)이니, 능견에 의하기 때문에 경계가 거저되어 나타나는 것이니 견을 여인다면 경계가 없어질 것이다.²³⁾

이 ‘세 가지 미세한 모습’을 경계로 무명의 마음이 상응(相應)하여 발생하는 ‘여섯 가지 거친 모습(六種相)’, ‘지상(智相)’, ‘상속상(相續相)’, ‘집취상(執取相)’, ‘계명자상(計名字相)’, ‘기업상(起業相)’, ‘업계고상(業繫苦相)’이 있다. 이를 밝힘으로써 텅 비어 분별과 주착을 여인 일심(一心)으로부터 무명의 업의 행(行)에 의거하여 과보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현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²⁴⁾

경계의 연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섯 가지의 상을 내는 것이니,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 첫째는 지상(智相)이니 경계에 의거하여 마음이 일어나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음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속상(相續相)이니 지상에 의거하여 고락의 감각을 내어, 마음이 망념을 일으켜 상응하여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집취상(執取相)이니 상속에 의해 경계를 반연하고 생각해서 고락을 지켜 머물러 마음이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넷째는 계명자상(計名字相)이니 잘못된 집착에 의거하여 거저된 명칭과 언설의 상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기업상(起業相)이니 명자에 의거해 이름을 따라가면서 집착하여 여러 가지의 업을 짓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업계고상(業繫苦相)이니 업에 의거하여 과보를 받아서 자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⁵⁾

『대승기신론』은 ‘경계없는 무한한 전체 의식으로서의 심(心)’이 “그 자체로서는 불생불멸이면서 자

23) 『대승기신론』, 권1(대정신수대장경, 권32, 577상). 한자경, 『한국철학의 맥』,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71-72쪽 재인용.

24) 이러한 불교의 현상론 또는 존재론은 12지 연기법에 상응한다. 일심이 무명으로부터 세 가지 종류의 미세한 상이 형성되는 것은 12지 연기의 무명(無明)→행(行)→식(識)의 단계 그리고 원불교의 경우 소태산의 친제(親製)인 「대중경」 천도품 5장의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문’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불교의 12지 연기의 존재론과 수행론에 대해서는 한자경, 『명상의 철학적 기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79-104쪽 참고.

25) 『대승기신론』, 권1(대정신수대장경, 권32, 577상). 한자경, 『한국철학의 맥』,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73쪽 재인용.

신 안에 생멸하는 일체의 유한한 개별 자아나 개별 사물을 다 포괄”²⁶⁾하는 원리를 밝히고 중생의 본래 마음인 일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범부,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의 이승(二乘) 그리고 대승보살의 수행을 세밀하게 밝혀 무명(無名)에서 명(明)에 이르는 수행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심이문의 원리를 통해 우주 만물이 한 마음에 바탕하여 존재한다는 그래서 일체의 것이 실체(實體)가 아닌 가유(假有)라는 대승의 존재론을 제시하는 것은 범부와 이승이 겁(怯)에 이르는 치열한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명을 극복하여 일심의 경지에 합일하기 위한 수행론과 분리되지 않는다.²⁷⁾

『대승기신론』에서 밝히고 있는 일심과 진여를 망각하여 무명에서 비롯되는 세 가지 미세한 모습(相)과 그 상을 상응하여 여섯 가지 거친 모습(相) 가운데 마지막인 ‘업계고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일체의 분별과 경계 너머의 일원의 자리에서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나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와 우주만유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에 일원상 진리의 구절을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와 “대소 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의 구절을 일원상 진리의 구조와 구절의 형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대구로 보는 관점을 따르지 않고 일체의 분별과 경계 너머의 초월과 무한의 일원의 자리에서 그 초월과 무한의 진공의 텅 비어 있는 자리가 묘유을 통해 우주만유를 형성하는 일원의 진리의 현상론의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일심을 망각하여 마음 본래의 자리를 상실하고 ‘주관적 사념’인 ‘념(念)’과 ‘객관화된 표상’인 ‘상(相)’이 본래는 텅 비어 있는 진공한 마음에 의거한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일체제법이 가유(假有)라는 유식성(唯識性)을 망각함으로 념과 상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불공업(不共業)의 업을 지어 나의 몸(有根身)을 형성하고 공업(共業)에 의한 세계(器世間)를 형성하여 현상세계의 각각의 개별적 존재와 우주만유를 형성하는 과정을 밝히는 『대승기신론』의 현상론이 대승기신론의 수행론과 불가분의 구조와 체계를 관계로 갖고 있기에 우주만유의 본원을 밝히고 있는 일원상 진리의 진공묘유의 존재론을 일원상 신앙과 일원상 수행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이 ‘일심이문’, 즉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을 통해 불교의 현상론을 밝혀서 궁극적으로는 범부와 이승을 넘어 대승보살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행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원불교의 일원상 진리는 일원이라는 ‘자리’에 바탕하여 우주만유가 형성되기까지의 현상론을 매우 압축적으로 담아내면서 동시에 일원의 진리에 체성에 합하기 위한 일원상의 신앙과 일원상의 수행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원상 서원문의 일원이 “유무 초월의 생사문”으로 언설된 것에 있어서 그 ‘문(門)’ 역시 대승기신론의 문(門)과 비교할 수 있다. 유무 초월의 생사문에서의 이 문은 한편으로 일체의 상대적이고 대대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생사 즉 일체의 변화와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소태산의 ‘체용(體用)’의 논리와 일원의 진리의 세 가지 측면

사리연구의 대·소·유무를 진리의 체와 용에서 대와 소를 체에 유무를 용으로 이원화 해서 보는 관점 그리고 유무가 시공간의 변화와 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체의 분별과 경계를 넘어서 초월의 경

26) 한자경, 『한국철학의 맥』,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70쪽.

27) 대승의 존재론과 수행론의 두 구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자경의 『대승기신론』의 세계를 참조할 것. 한자경 지음, 『대승기신론강해』, 서울: 불광출판사, 2013, 20-45쪽.

지인 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중진의 관점은 사리연구의 대·소·유무가 모두 ‘천조’의 ‘난측한 리(理)’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사리연구의 리(理)를 모를 경우 인간의 육근 동작의 일체의 업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면 해탈도 불가능하다. 이 천조의 난측한 이치를 세 가지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중진의 견해에 따르면 대, 소, 유무 가운데 대와 소를 체로 유무를 용으로 볼 때, 이 용도 대와 소와 마찬가지로 천조의 난측한 이치다. 하나의 이치에 세 가지 차원이 분별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무를 시공간에 구속되어 있는 현상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가시적(可視的)인 변화인 것으로 간주하여 우주의 진리인 ‘법’이자 ‘법도’인 “천지의 춘·하·추·동 사시 순환과, 풍·운·우·로·상·설(風雲雨露霜雪)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와 동일시 할 수 없다. 유무는 대와 소와 함께 현상 초월적 원리로서 현상세계를 형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의 결과물로서 감각과 인식의 대상이 되는 현상세계의 가시적인 것들과 동일시 할 수 없다.

대·소·유무를 체와 용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이 두 측면이 모두 모두 천조의 난측한 이치로 진리의 본체와 그 본체의 작용이며 이 작용의 활동성에 근거하여 이 ‘세상’이 건설된다. 세상을 건설하는 이 이치를 모를 경우 사(事), 즉 인간의 시·비·이·해(是非利害)의 일을 운전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운전이 불가능한 것이다.

유무를 시방삼계의 시공간에 예속된 생성, 변화, 운동과 동일시하는 관점은 특정한 사람의 사적 견해라기 보다는 현상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비가시적 무형의 세계를 부정하고 감각과 지각 그리고 인식의 대상이 되는 유형의 세계만을 인정하는 근대 이후 근대성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18세기 이후의 서양 그리고 19세기 동양에서 공통적인 역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몽배원의 『성리학의 개념들』에서 체(體)와 용(用)이 명말청초에 이르러 근대 이후 형이하자의 차원으로 격하되어 이해되는 역사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송대 성리학의 경우 용은 “본체의 기능이자 작용”이면서 또한 “활발한 현실적 감성의 존재”이며 “생동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을 표현하는 것”²⁸⁾이었는데, 명말청초에 이르러 ‘본체의 작용’이라는 형이상자적 의미는 점차 망각되고 형이하자적 의미만이 남게 된다.²⁹⁾

불법연구회 당시 진리의 작용에 대한 당대의 근대적 이해와 그와 달리 소태산이 깨달은 작용이 갖는 형이상자적 측면에 대해서는 주산 송도성 종사(主山 宋道成 宗師, 1907~1945)가 대종경 편수를 위해 구타원 종사께 증정한 수필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태산이 뜰 앞에 난만(爛漫)하게 피어있는 배꽃을 보시다가 오창건(四山 吳昌建, 1887~1953)에게 “저 배나무에게도 체와 용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신다. 오창건의 답변을 통해 그가 진리의 작용, 즉 용에 대한 이해가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광겁의 근원적인 작용이 아닌 형이하자적 차원의 작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해의 방식은 바로 진공과 묘유의 조화 그리고 천조의 난측한 이치가 갖는 형이상자(形而上者)를 망각하고 상실한 근·현대의 근대성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소태산은 이 대화에서 오창건의 답변에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간파하는 것이 소태산의 깨달음의 경지에서의 용(用)의 의미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소태산은 오창건에게 “체와 용을 구별”해 보라고 한다. 오창건이 이 물음에 답을 한다. 오창

28) 몽배원 지음, 『성리학의 개념들』, 홍원식, 황지원, 이기훈, 이상훈 옮김, 서울: 예문서원, 2011, 299,300쪽,
29) 유교의 본체와 작용은 이치와 의리의 관계에서 이치란 본체이며 의리란 작용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의리는 본체인 이치의 기능이자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복계 진순 지음, 『성리자의』, 서울: 여강출판사, 2005, 152쪽. “이치와 의리를 상대적으로 말하면 이치란 본체요, 의리란 작용이다. 이치란 사물의 당연한 법칙이며, 의리는 이치로써 대처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정자는 ”사물에 있어서는 이치요, 사물을 처리하는 것은 의리”라고 하였다.

건은 ‘뿌리’를 ‘체’로 ‘꽃’과 ‘잎’을 ‘용’이라 답변한다. 이때 용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을에 이르러 없어지고 체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 대화에서 소태산은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하였다고 답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소태산의 체용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 열쇠가 된다.

정신은 쫓대 없이 흠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 정신은 생기(生氣)를 얻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자 원천이며 시간을 초월하여 세상에 다시 출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신이 흠어져 없어진다면 그것이 다른 아닌 ‘무간지옥(無間地獄)’이라는 것이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한 것에 대한 소태산의 답변이다. 이 대화를 통해 체뿐만 아니라 용 역시 본체의 작용으로서 정신의 근원적인 작용이며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 초월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가) 창건 - 「예, 있습니다.」
- 나) 선생 - 「그러면 체와 용을 구별하여 말해 보게!」
- 다) 창건 - 「뿌리는 체가 되었고, 꽃과 잎은 용이 되겠습니다.」
- 라) 선생 - 「만약 추절(秋節: 가을)을 당하여 꽃과 잎이 없어지는 때에는 무엇이 용인가?」
- 마) 창건 - 「그 때에는 용이 체에 돌아와 합하는 고로 용은 없어지고, 다만 체만 남아있습니다.」
- 바) 선생 - 「그럼 식물은 그만두고, 동물로 말하여 보자. 근일(近日: 근래)에 산승 김성연이 사망하였으니, 그 사람으로 말하면 무엇이 체며 무엇이 용이겠느냐?」
- 사) 창건 - 「‘사망’이라 하면 용이 돌아가 체에 합한 것이니, 용은 없어지고 다만 체만 있습니다.」
- 아) 선생 - 「체가 어느 곳에 있느냐?」
- 자) 창건 - 「포태 중(유언무극猶言無極: 마치 무극無極이라 말한 것 같음)에 있습니다.」
- 차) 선생 - 「지금 절후(節候: 24절기)는 무슨 절후이냐?」
- 카) 창건 - 「상강(霜降) 절후 이옵니다.」
- 타) 선생 -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세상에 나올까?」
- 파) 창건 - 「춘분(春分) 절후가 되면 나오겠습니다.」
- 하) 선생 - 「창건의 말이 근가하나(정답에 가까우나), 한 가지 뜻이 드러나지 못하였다.」
- 거) 하시고 인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이 살았을 때, 마음에 선악 간 무슨 발원이 있어서 미망(未忘: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한 생각을 두고 정신을 전일하게 하여 가지고 가면 반드시 곧 돌아올 기한이 있지만, 만일 이 세상에서 발원 세운 바가 없고 쫓대 없이 흠어진 정신으로 가면 무엇을 인하여 생기(生氣)를 얻어서 다시 세상에 출현하리요. 이것이 곧 가로되 ‘무간지옥(無間地獄)’이니라.」³⁰⁾

사리연구의 ‘유무’를 시공간에 예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진리의 대와 소에 부합하는 체와 그 체의 작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유무가 본체와 본체의 작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사리연구의 천조의 난축한 이치를 세 가지로 분별한 것에서 유무를 배제하는 것이 된다. ‘유무’는 하나의 진리의 세 가지 측면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정전」 ‘사리연구의 요지’에서 유무를 “천지의 춘·하·추·동 사시 순환과, 풍·운·우·로·상·설(風雲雨露霜雪)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로 정의했을 때, 이 유무의 정의를 본체, 즉 체와 그 체의 형이상학적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진리의 본체와 그 본체의 작용의 결과물로서의 시방삼계가 진리의 작용의 결과로서의 형이하학적 소산물(所產物)이라는 점에서 이원론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원불교 교리의 바른 이해를 위해 동·서양의 근대 이후에 신과 현상세계의 관계와 진리의 체용관에 대한 인식의 역사적 변화에 따라 형이상학적 차원을 망각하고 형이하학적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관점

30) 이승훈 편저, 『원각성존圓覺聖尊-(권2) 「대중경」 선외選外 수필법설집-』, 『법설수필집(주산 송도성)』, 2024, 미발행, 119쪽, 120쪽. 괄호 안의 풀이는 이승훈의 해석이다.

은 바른 신앙과 수행을 위해서 지양되어야 한다. 진리에 대한 근대적 관점은 『대승기신론』의 ‘진여 자체’의 체(體)와 그 공덕(功德)인 상(相)과 작용의 용(用) 각각의 삼대(三大)의 ‘위대함’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게 된다. 상과 용은 모두 위대한 것으로 진리 자체의 공덕(功德)과 작용(作用)을 의미한다. 물론 무명으로 인해 그 공덕과 작용이 우주만유의 본 바탕이 되는 일심(一心)이 오염될 수 있지만 무명이 명에 기반한 것이기에 그 무명만 제거되면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 너머에 본체와 작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일원과 일심은 우주만물의 본원이자 바탕이면서 우주만물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비록 무명(無明)으로 인해 오염이 될 수 있지만 본원과 바탕은 그러한 무명과 오염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지눌은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에서 종밀(宗密, 780-840)의 구술의 빛의 비유를 통해 홍주종, 북종, 우두종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무’를 본체와 그 본체의 작용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은 지눌의 ‘북종’에 대한 비판에 부합한다.

만일 [구술]의 밝은 빛깔이 모든 것을 능히 나타내는 본체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다만 검은 빛깔 등이 바로 구술이라고 하거나, 검은 빛깔 등을 떠나서 구술을 찾거나, 또는 밝은 빛이나 검은 빛이 모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밝은 구술을 보지 못한 것이다.³¹⁾

북종은 “구술의 밝은 빛깔이 모든 것을 능히 나타내는 본체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데 북종의 경우 구술이 띄고 있는 검은 빛깔을 떠나서 구술의 밝은 빛을 찾고 있는데 이것은 밝은 구술을 보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밝고 투명한 빛깔의 구술은 밖에 놓인 사물의 색에 따라 검거나 붉거나 푸른색으로 달리 보일 것”³²⁾이다. “이때 구술이 보여 주는 검은 색 또는 작용을 떠나 구술 자체를 찾으려 하는 것”은 작용을 떠나 본체를 찾는 것으로 중생심이 곧 부처라는 『대승기신론』의 핵심 그리고 원불교의 일원이 ‘일체중생의 본성’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난다.

일원상 진리의 체와 용 그리고 사리연구의 대·소·유무의 상응 여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6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일원상의 종지’는 ‘대자리’를, ‘사은의 내역’은 ‘소자리’를, ‘인과와 계율 등 모든 법’은 ‘유무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다.

대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 이해를 건설한다”는 범위조항을 해설하시기를 [성인은 반드시 우주의 진리를 응하여 인간의 법도를 제정하시나니, 우리 법으로 말씀하면 일원상의 종지는 대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사은의 내역들은 소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요, 인과와 계율 등 모든 법은 유무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인 바, 성인의 법은 어느 법이나 이치에 위반됨이 없이 시비해가 분명하게 짜여 지나니라. 또는 이를 개인 공부에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항상 일원의 체성을 체받아서 일심 즉 선(禪)을 잘 닦으라 하신 것은 대를 운용하는 법이요, 사사 처처에 보은 불공하는 도를 잘 알아 행하라 하신 것은 소를 운용하는 법이요, 유무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유무를 따라 마음을 활용하며 변천의 도를 알아 미리 준비하여 사업을 성공하게 하신 것은 유무를 운용하는 법이니라.³³⁾

‘대소 유무’의 이치에 ‘대자리’와 ‘소자리’와 ‘유무자리’는 하나의 진리의 세 가지 측면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은 소태산 대종사가 하나의 진리인 ‘우주의 진리’를 응하여 인간의 ‘법도’로서 원불교 교리의 종지인 일원, 사은 그리고 인과와 계율 등의 모든 법을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유무자리’

31) 知訥,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韓國佛教全書』, 권4, 745상). 한자경, 『한국철학의 맥』,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103쪽 재인용.

32) 한자경, 『한국철학의 맥』,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104쪽.

33) 「정산종사법어」, 제6경의편 36장.

는 하나의 진리의 세 가지 측면의 하나이며 진리의 체와 용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태산이 제정한 법도는 ‘개인 공부에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일원의 체성을 체받아서 일심 즉 선(禪)을 잘 닦으라 하신 것”은 ‘대를 운영하는 법’이며 “사사 처처에 보은 불공하는 도를 잘 알아 행하라 하신 것”은 ‘소를 운영하는 법’이며 “유무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유무를 따라 마음을 활용하며 변천의 도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에 성공하게 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유무를 초월하면서도 유무를 따라서 ‘유무를 운용하는 법’이다. “인과의 계율 등 모든 버은 유무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이다.

대, 소, 유무의 세 가지 차원은 범부 중생이 우주의 진리의 체성에 합하기 위해 일원의 종지로서 ‘일원의 체성’에 합하기 위해 일심을 닦아야 하며, 사은의 ‘피은’, ‘보은’, ‘배은’ 되는 세 가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 사은의 도(道)와 덕(德)을 체받아 사사 처처에 보은 불공하는 도를 행하여야 하며, “천지의 춘·하·추·동 사시 순환과, 풍·운·우·로·상·설(風雲雨露霜雪)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인 유무의 변천의 도를 알고 준비해야 한다. 유무는 변천의 도로써 유무에 집착하지 않아 유무에 따라서 자유롭게 마음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도이다.

특히 사리연구의 대, 소, 유무 중에서 소(小)는 “만상이 형형 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³⁴⁾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소를 분별과 상대의 현상세계에서 감각, 지각 그리고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과 동일시하는 만연된 근대적 선입견도 지양해야 한다. 소태산은 우주의 진리를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법을 제정한 것이다. 사은의 핵심은 도와 덕이며 사은 보은의 강령은 이 도와 덕을 체받는 것인데, 이 도와 덕 혹은 도와 그 도의 작용인 ‘은혜’³⁵⁾를 시공간의 분별과 경계지어진 우주만물과 동일시하는 것은 사은의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만물의 생명을 지속한다는 것 그리고 만물의 형각(形殼)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도와 덕의 근원적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 된다. “만상이 형형 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³⁶⁾은 인간의 감각기관, 지각, 인식의 대상이 되는 개관적 대상세계가 아니라 그러한 대상세계를 형성해 내는 현상 초월적 진리의 체와 그 체의 작용이며 ‘사은의 내역’이 우주의 세 가지 진리 가운데 “소자리를 응하여 건설된 법”인 만큼 우주의 진리는 사은의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으로 구별할 수 있고 ‘사은의 내역’에서 내역은 피은 보은 배은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산종사는 「정산종사법어」 제5원리편 2장에서 하나의 진리를 세 가지 측면으로 분별하여 ‘일원의 진공체(眞空體)’, ‘일원의 묘유’, ‘일원의 인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의 원리는 모든 상대가 끊어져서 말로써 가히 이르지 못하며 사랑으로써 가히 계교하지 못하며 명상으로써 가히 형용하지 못할지라 이는 곧 일원의 진공체(眞空體)요, 그 진공한 중에 또한 영지 불매하여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자재하니 이는 곧 일원의 묘유요, 진공과 묘유 그 가운데 또한 만법이 운행하여 생멸 거래와 선악 과보가 달라져서 드디어 육도 사생으로 승급 강급하니 이는 곧 일원의 인과인 바, 진공과 묘유와 인과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한가지 일원의 진리가 되나니라. 대중사께서 이 일원상으로써 교리의 근원을 삼아 모든 공부인으로 하여금 이를 신앙케하고 이를 연구케하며 이를 수행케 하신 것은 곧 계단을 초월하여 쉽게 대도에 들게 하고 깊은 이치를 드러내어 바로 사물에 활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진리를 구하는 이가 이 외에 다시 구할 곳이 없고 도를 찾는 이가 이 외에 다시 찾을 길이 없으며 그 밖에 일체 만법이 이 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나니라.]³⁷⁾

34) 「정전」, 제2 교의편(教義編) 제4장 삼학(三學) 제2절 사리연구(事理研究)

35) 「대종경」 제4 인도품 2장.

36) 「정전」, 제2 교의편(教義編) 제4장 삼학(三學) 제2절 사리연구(事理研究)

37) 「정산종사법어」, 제5원리편 2장.

‘일원의 진공체’는 일체의 분별 너머의 초월지경이기에 상대가 끊어졌고 언어와 명상으로 형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절대와 무한의 경지는 불공(不空)이 아니다. “이 진공한 중에 영지가 불매하여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자재”한다. 이것이 ‘일원의 묘유’다. 일원상 진리에서 ‘공적영지의 광명’은 ‘진공(眞功)’한 한 가운데 ‘불매(不昧)’하여 ‘광명’이 자재(自在) 하면서 시방삼계와 우주만유와 ‘만상(萬像)’을 관통한다. 그런데 이 진공과 묘유 가운데 만법(萬法)이 운행하고 생멸 거래와 선악 과보가 달라져서 육도 사생으로 승급과 강급을 하는 것이 ‘일원의 인과’이다. 소태산은 이 일원상으로써 교리의 근원을 삼아 이를 신앙, 연구, 수행케 하였고 이것이 계단을 초월하여 대도에 들게 하고 깊은 이치를 드러내어 사물에 활용케 하셨다.

일원상의 진리에서 무한과 절대의 자리인 “대소 유무(大小有無)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言語名相)이 돈공(頓空)한 자리”가 원리편 2장에서 ‘일원의 진공체’로 이 본체는 아무 것도 없는 추상적이고 공허한 무가 아니라 ‘영지’의 ‘광명’이 있어 이 광명이 “시방을 포함하고 조화가 만상을 통하여 자재”하는 ‘일원의 묘유’가 된다. 그런데 이 진공과 묘유 가운데 만법이 운행하여 “생멸 거래와 선악 과보”가 달라지게 하는 ‘일원의 인과’가 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한가지 일원의 진리”이다.

따라서 일원의 진리에서 생멸거래에 변함이 있게 되는 구절이 빠져야 한다는 견해는 하나의 일원의 진리에서 세 가지 측면 가운데 하나인 일원의 인과를 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원의 진공체, 일원의 묘유, 일원의 인과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짓는 것, 즉 「대종경」 서품 1장의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道)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³⁸⁾에 위배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일원상의 진리」를 둘러싼 해석 논쟁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2005년 이후 전개된 논쟁은 특정 구절의 결락 여부나 문장 구조의 문제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일원상 진리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논쟁 과정에서 ‘대·소·유무’와 ‘체·용’(또는 체·상·용)과 같은 개념은 해석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일원상의 진리」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일부 입장은 문장 구조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현재의 교리 체계를 옹호한 반면, 다른 입장은 특정 내용이 개념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체용 또는 체상용 개념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이해가 제시되면서, 해석의 기준과 범주 설정 자체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일원상의 진리」에 대한 해석은 개별 문장의 의미를 확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리의 구조와 개념 체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석은 언제나 일정한 범주와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 범주 설정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성립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일원상 진리 해석은 하나의 단일한 결론으로 수렴되기보다는, 개념적 엄밀성을 바탕으로

38) 「대종경」, 제1서품 1장.

하면서도 맥락에 따라 타당하게 성립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즉 정밀한 개념 분석을 통해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석의 범위와 관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간 차이를 생산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전』 사리연구에 나타난 대·소·유무 개념의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나아가 『대종경』 성리품에 나타난 체용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 그 의미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체용과 체상용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소태산 사상의 특수성과 연속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원상 진리 해석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와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발표문은 일원상 진리 해석에서 오래되어 온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특히 ‘대소 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의 의미를 사리연구의 ‘대·소·유무’와 엄격히 구분하고, 일원상 진리의 구조를 수사적 대구가 아니라 진공에서 묘유로 전개되는 현상론으로 읽어내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글은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과 소태산의 체용 논리, 그리고 정산종사의 법문을 연결하여 일원의 진리를 ‘진공체·묘유·인과측면의 통일적 구조로 해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밀도가 높다. 이러한 점에서 본 발표문은 단순한 해석의 교정이 아니라, 원불교 교리 해석의 방법론 자체를 재정립하려는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발표문의 가장 큰 장점은 일원상 진리의 ‘대소 유무’와 사리연구의 ‘대·소·유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한 데 있다. 논자는 일원상 진리의 ‘대소 유무’를 절대와 무한의 초월적 경지를 언설하는 개념으로 읽고, 사리연구의 ‘대·소·유무’는 천조의 리를 세 측면에서 분별한 개념으로 읽는다. 이 구분이 성립할 때, 일원상 진리의 “대소 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를 사리연구의 유무 개념으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기존 입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또한 “대소 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이하의 구절을 앞선 문장과 대칭되는 결락 구조로 볼 것이 아니라, 무분별의 자리에서 분별과 차별, 언어와 명상이 현현하는 생성의 과정으로 읽어야 한다는 논지 역시 상당한 해석적 힘을 갖는다. 이 점은 일원상 진리를 정태적 본체론이 아니라 동태적 현상론으로 이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

이 발표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노장사상과 중요한 비교 가능성을 제공한다. 먼저 노장사상에서 ‘대와 소’는 단순한 크기의 차이나 존재론적 위계가 아니라, 분별의 상대성과 관점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치로 작동한다. 『莊子』 「逍遙遊」의 ‘小大之辨(辯)’은 큰 것과 작은 것이 객관적 실체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와 시야에 따라 규정되는 상대적 범주임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장자에게 ‘대’와 ‘소’는 대립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통해서만 성립하는 관계적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발표문이 말하는 ‘대소 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는 대와 소의 구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와 소에 대한 집착된 분별을 넘어서는 자리로 읽힐 때 노장사상과 더 깊게 호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분별이 없다’는 것은 차이가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차이를 절대화하는 집착이 소멸한다는 뜻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발표문의 해석은 장자의 관점적 상대주의와도 생산적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노자 사상에서 ‘유와 무’는 서로 배타적인 두 실체가 아니라 상호 성립적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노자는 ‘무’가 단순한 결핍이나 공허가 아니라 ‘유’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자 쓰임의 조건임을 강조한다. 바퀴 통의 빈자리, 그릇의 빈공간, 방의 빈 내부가 실제 기능을 낳는다는 설명은, ‘무’가 오히려 실질적 작용의 근거임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발표문이 ‘진공’과 ‘묘유’를 하나의 진리의 두 측면으로 읽고, 무분별의 자리에서 분별이 나타나며 현상세계가 전개된다고 본 것은 노자의 유무론과 상당한 친연성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노자는 ‘유’와 ‘무’를 선후 관계로만 서열화하지 않는다. ‘무’가 근원이라고 하더라도 ‘유’는 단지 그 결과로 떨어져 나온 부산물이 아니라, 도의 작용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 자체이다. 따라서 발표문이 묘유를 진공에서 비롯되는 작용으로 설명할 때에도, 진공과 묘유 사이를 원인과 결과의 일방향 도식으로 고정하지 않고 상호내재적 구조로 더 분명히 설명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진공이 본체이고 묘유는 부차적 현상’이라는 식의 위계적 오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발표문은 『대승기신론』을 적극적으로 끌어와 일원상 진리의 현상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작업은 분명 유효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검토도 필요하다.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과 원불교 일원상 진리 사이에는 구조적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양자를 지나치게 밀착시키면 원불교 고유의 교리적 독자성이 상대적으로 흐려질 가능성도 있다. 노장사상과의 비교가 이 지점에서 하나의 균형 장치가 될 수 있다. 곧 일원상 진리의 ‘무분별의 자리’와 ‘분별의 현현’을 불교적 진여-생멸 구조로만 읽지 않고, 노장의 유무상생과 대소상대의 논리까지 함께 참조한다면, 일원상 진리는 특정 불교 교학의 범안이 아니라 동아시아 사유 전체 속에서 재구성된 독자적 종합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원불교 사상사의 자립성을 논의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